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39년을 맞은 월간양계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이정표를

이번 호로 월간양계가 창간 39돌을 맞이하였다. 통권 469호로 지난 1969년 이후 한 번의 결간 없이 발행이 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잡지협회에 등록된 잡지만 해도 국내에 약 6천여 종이 발행되고 있으며 이중 1년에 700여개의 잡지들이 창간과 폐간을 반복하고 있다. 아무리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잡지들도 독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라져가는 것이 잡지의 생리이다.

월간양계가 39년간을 양계인들로부터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왔고 독자들이 꾸준히 사랑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월간양계는 일반 양계업을 경영하는 양계인들이 가장 큰 독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비자는 물론 학계, 연구계, 정부관련 기관에서도 유용하게 읽혀지는 등 독자층이 다양하다. 다양한 취향의 독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계산업의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08년은 한국잡지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해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대종합잡지인 “소년”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08년 11월 1일 “소년” 잡지를 창간한 육당 최남선은 일본 유학을 중도에 마치고 돌아와 1908년 5월 출판사 신문관을 설립하고 잡지를 창간하게 되었다. 최남선은 어려서부터 신문잡지를 열독하였고, 일본에서의 다양한 잡지와 자주 접촉하였으며, 직접 잡지를 만들어 본 경험을 토대로 “소년”을 발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소년들의 계몽을 위해 창간된 “소년”은 일제시대 하에 발행된 잡지인 만큼 일본의 간섭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번의 정간을 거쳤고, 결국 3년 후인 1911년 통권 23호로 폐간에 이르렀다.

“월간양계”와 “소년”은 잡지라는 것 뿐만 아니라 창간일도 11월로 동일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지 “소년”은 우여곡절 끝에 3년 내에 폐간되었지만 월간양계는 39년 동안 꾸준히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월간양계를 창간할 당시 가금협회(양계협회 전신) 회장으로 계시던 오봉국 박사(본회 고문)가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창간을 강행하였고, 많은 업체에서 협찬을 해준 덕

분에 지금의 월간양계가 있을 수 있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음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100여년 역사 동안 “소년”이 뿌려 놓은 씨앗 중의 하나가 월간양계라고 볼 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계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더욱더 고민하고 다가갈 수 있는 잡지로 영원히 생명력을 갖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 중국산 멜라민 공포 확산 양계업계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멜라민의 공포가 양계업계를 피해가지는 못하였다. 중국 본토에서 시작된 멜라민 공포는 국내산 과자에서 멜라민 성분이 확인된 이후, 우유분말, 사료, 대두박 원료, 심지어는 계란 분말까지 단시간에 마스크를 타고 소비자들에게 전파되었다.

우리업계와 관련해서는 사료에 첨가하는 생균제에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 되는가 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전란분을 사용한 일본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되었고 국내산에서도 동 업체로부터 수입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그 여파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모 언론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닭고기, 심지어는 닭고치에 껴는 나무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모든 닭 제품이 멜라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외식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닭 사료에서의 멜라민 검출 보도는 마치 모든 닭들이 멜라민을 섭취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였다.

본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기도 소재 첨가업체의 생균제 시료 2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닭 사료첨가제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과잉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앞으로 과도한 표현을 삼가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며, 아직 국내산 계란에서 잔류여부가 확인 된 바 없기 때문에 선부른 과장보도는 양계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각인 시켰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최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멜라민을 사료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물질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또한 아직 사료원료 및 사료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전란분, 난백분, 난황액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에 수입을 중단 시키고 중국정부에 오염원인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멜라민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결석이나 신장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위험한 물질임에 틀림없다. 중국산을 제외하고 국내 양계관련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 나라가 멜라민에 휩싸여 있는 만큼 양계산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우리 양계산물이 안전하다는 정확한 근거와 이론을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계열화 사업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 제기 계열업체와 농가간 상생의 길 찾길

최근 계열화 사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수직 계열화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수평계열화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며, 일부 계열업체에서 농가와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표면적으로 (주)하림의 양돈업계 진출 움직임에 대한 양돈인들의 반발로 시작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빚어진 문제들이 표면위로 부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6일 개최된 (주)하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이 그동안 참아왔던 농가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고 볼 수 있다. 증인으로 나선 김홍국 (주)하림 회장은 국내 닭고기 자급률이 92%이며, 하림의 계약사육농가의 96%는 현실에 만족한다는 증언을 하였고 이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설문지를 이름과 성함을 기재한 상태로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계열화 사업은 언제까지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계열화 사업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전문 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괄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의 지원 아래 육계 계열화사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계열주체는 농가들과 사육계약을 통해 사육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일부 계열사와 농가들 간에 사육계약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계열사와 농가들이 종속관계로 점점 바뀌어 갔다.

현재 거래되는 계약서를 보더라도 사육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사육수수료가 300원부터 450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농가들은 상대평가를 절대평가제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결제지연, 병아리 폐사시 농가 책임전가, 정당한 대가 요구시 입추중단, 의무자조금 추진에 대한 비협조 등이 함께 공생하자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농가들은 숨을 죽이고 농가들의 권리주장을 참아가며 육계사육을 해왔다. 정부에서 불공정 계약사육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처럼 계열화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올바른 계열화 사업을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다. **양계**